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가치의 영향

2017 년 8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전 투위 융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in

South Korea and Viet Nam:

Influence of Confucianism Culture and Patriarchal Values

A Thesis presented by

Tran Thuy Dung

To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a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ugust, 2017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가치의 영향

지도교수 은기수

이 논문은 한국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07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전 투위 융

전투위융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07월

위원장 박태균

부위원장 김태균

위원 은기수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in

South Korea and Viet Nam:

Influence of Confucianism Culture and Patriarchal Values

Advisor: Professor Eun Ki Soo

Submi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July 2017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Major

Tran Thuy Dung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Tran Thuy Dung

July 2017

Committee Chair	Park, Tae Gyun
Committee Vice-Chair	Kim, Tae Gyun
Committee Member	Eun, Ki Soo

<국문초록>

전투위융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한국과 베트남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한 남아선호 사회로 알려져 있다. 강한 남아선호로 인해서 태아 성감별이나 성선별적 인공유산을 시도하여 출생 성비가 비정장적으로 높아지는 등은 양 국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들이다. 한국의 경우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남아선호의 근원인 가부장적 가족가치가 약화되면서 아들에 대한 선호도 약화되었다. 반면에 베트남에서 남아선호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최근에 빠른 속도로 출생 성비가 급증으로 많은 사회학자의 관심을 끌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를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가치의 영향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변수를 통해 양 국가의 자녀 성선호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가치를 비교하고 베트남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강한 남아선호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부 베트남에서

북부에 비해 남아선호가 약한 것에 대해 알아보고 남부 베트남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남부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 :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가치의 영향

주요어: 자녀 성선호, 아들선호, 딸선호, 가족가치, 가부장적 가치

학번: 2014-24255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4

3. 선행연구 검토---------- 7

4. 연구방법 및 자료 ---------- 13

제2장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 및 관련 사회적 이슈---- 16

1. 지역적 배경 및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 16

2. 한국과 베트남의 남아선호에 관한 사회적 이슈 ------- 23

2.1. 불균형 출생 성비 ---------- 23

2.2. 태아 성선별적 인공유산---------- 33

3. 소결---------- 40

제3장 유교 문화 및 가부장적 가치 측면으로 보는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 42

1.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 가치 ---------- 42

2. 남부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 ---------- 49

2.1. 남부 베트남의 특징 ---------- 49

2.2. 남부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 ---------- 53

3. 소결---------- 61

제4장 결론---------- 63

참고문헌 ---------- 68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자녀의 특정한 성별을 선호하는 것은 자녀 성선호(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라고 하며 남아선호, 여아선호, 무성선호 등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든 사회에서 자녀 성선호가 존재한다.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농경 사회 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아선호가 강한 것으로 아들을 딸보다 선호하는 반면 모계사회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그만큼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 성선호는 결혼, 출산, 가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에 따라 그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 기존 남아선호 또는 여아선호 외에 자녀 성 동등선호나 무성선호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은기수, 2013).

1994 년 11 월 서울에서 "International Symposium on Issues Related to Sex Preference for Children in the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Dynamics in Asia"[1]가 개최되어 많은 학자가 참여와 발표를 하였다.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문 내용을 정리하자면 중국, 대만, 한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과 베트남 등 국가에서 남아선호 사회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반면

[1] "International Symposium on Issues Related to Sex Preference for Children in the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Dynamics in Asia"는 1994 년 11 월 21~24 일 동안 서울에서 국제연합인구기금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남아선호가 약한 사회로 발견되었다(Judith Banister[2]).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문화권에 있으며 가부장적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아선호가 강한 사회이다(은기수, 2013; Kana Fuse, 2008; J. Haughton and D. Haughton, 1995). 아시아는 대부분 농경사회이며 중국 문화권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통 사회가 현대 사회로 변화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 사회처럼 노동력은 예전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가족의 형태 또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다. 한국과 북부 베트남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강하고 그 남아선호 사상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일본과 태국은 남아선호 사상이 약화되면서 여아선호 사회로 변하고 중국과 대만은 무성선호 경향을 보이고 있다(은기수, 2013).

어떤 사회가 남아선호 사회인지 아닌지 그 국가의 출생성비[3]라는 지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 정책을 도입하기

[2] Son preference in Asia – Report of a Symposium

[3] 출생성비(Sex Ratio at Birth - SRB)란 출생 시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로 표시되는 지표이며 전세계의 정상 출생성비는 105~107이다.

전까지 합계출산율이 높으면서 1929 년도에 출생성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기록하였다 (Russell, 1936). 1961 년도부터 경제개발을 위해 국가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함으로 합계출산율이 점차 감소되는 반면에 남아선호로 출생성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90 년에 116.5 로 정점이 되고 그 다음 해부터 출생성비가 점점 감소하며 2007 년까지 106.2 로 정상적인 범위에 되돌아갔다(Andrea Den Boer, Valerie Hudson 2017). 높았던 한국의 출생성비가 정상범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국가 정책의 결과하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Chung and Das Gupta, 2007).

반면에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전쟁 이후 경제개발을 위해 많은 정책을 마련되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을 통제하고 합계출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베트남 정부도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출생성비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2000 년도까지 정산 범위에 유지하였다. 한국의 출생성비가 정상으로 되돌아갈 무렵 2006 년부터 베트남에서 출생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며 2015 년에 여아 100 명당 남아 113 명으로 기록하였다(GSO – General Statistic Office).

남아선호 사상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제이다. 남아선호 사상으로 원하는 남아의 수가 도달될 때까지 자녀를 많이 낳아 인구적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국가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실행하기

시작하여 출산율이 저하되는데 남아선호 사상이 여전히 강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해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태아 성감별하며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등으로 출생성비가 불균형을 일으키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사회는 남아선호가 강한 사회인데 그 남아선호도가 지표로 나타내는 시기가 다르다는 원인이 무엇인가? 전통사회에서 양 국가에서 강한 남아선호 성격이 띄었는데 한국은 점차 남아선호가 약화되어 가면서 여아선호 사회로 변화하지만 베트남은 어떤 모습인가? 남아선호 강한 한국은 점차 여아선호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즉 남아선호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궁금함으로부터 베트남과 한국의 자녀 성선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남아선호사상 또는 남아존중사상은 남존여비 사상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딸보다 아들이 더 좋아한다는 뜻이다. 현대 전세계에 여성운동의 발달과 함께 여성의 권리도 인정 받았으나 남아선호사상은 오래전부터 지배 이데올로기로 몇몇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특히 동양사회에서 뿌리 깊게 심어지고 있으며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남아선호 사상은 서양에서의 남성이 여성보다 여러 측면으로 우월하다는 고정관념과 부계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중요한 지위를 가질 수 있거나 출세의 기회가 더 많다는 점으로부터 시작되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꺼리지 않고 받아들여졌다. 심지어 1993 년도에 실시된 남아선호 사상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아들을 선호하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왔다 (진교훈, 1997).

한국과 베트남에서 남아선호의 기반은 유교 문화와 유교 문화를 비롯한 가부장제이다. 한국에서 조선 시대부터 사회가 유교화되면서 유교 문화의 가치들이 한국 사회에서 뿌리 깊게 내려지기 시작하였다.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모변의 친족이 보였으나 조선 시대로 넘어가 점차 상실하였으며 출계 집단이 좁히거나 장자 상속의 강화 또는 거주 형태에 관하여 처가 거주에서 부처제로 바뀌는 등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도이힐러, 2003).

베트남은 가부장제 및 봉건적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아선호가 강하며 오래 시간이 지나 현대 사회에서 아들이 하나만 있어도 자녀가 있는 것이고 딸 열 명이 있어도 자녀가 없다는 고정관념으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좌우하기도 한다.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가 유교 문화의 '효'사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은 가계를 계승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들이 없은 것은 부모 또는 조상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부분 적어도 아들이 한 명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들이 낳을 때까지 아이를 계속적으로 낳거나 태아 성별을 감별하여 인공유산을 시도한다. 아들이 있으면 가계를 이을 사람이 있다거나 노후가 보장된다는 등 고정관념은 점차 지배적인 이념이 되어 따라서 남아선호 사상도 강화되었다.

한국은 한 때 출생성비의 차가 높았고 현재 정상으로 돌아갔으나, 베트남은 한국과 비슷한 현상이지만 한국보다는 뒤늦게 일어나고 있다. 같은 남아선호 성격이 띄는 사회인데 시기가 왜 안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출발점으로 하고 양국의 출생성비의 변천을 통해서 남아선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본 논문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남아선호 강도의 변화가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가치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는 주장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주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북부 베트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Danièle Bélanger, 2002)나 남아선호와 합계출산율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D. Hollander, 1996; Haughton and Haughton, 1996) 또는 광범위적으로 전국 규모로 남아선호를 살펴보는 연구(Danièle Bélanger, 1995; Guilmoto, 2012)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불균형 출생 성비에만 주점을 맞춰 이루어졌고 호치민(Ho Chi Minh)시 를 포함하여 남부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에 대한 깊은 연구나 남부 베트남에서의 약한 남아선호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따로 없었다. 베트남은 북부에서 아들선호가 강한 반면 중. 남부 지역에서 아들선호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은기수, 2013; Guilmoto, 2012).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남아선호 태도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유교 문화적 가치와 가부장적 가치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베트남의 남아선호에 대해 보다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겠다.

3. 선행연구 검토

자녀 성선호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자녀 성선호에 관련해서 전세계의 규모에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Robert Repetto(1972), Sydney B. Westley (1995) Robin Burgess and Juzhong Zhuang(2000), Nan Li, Marcus W. Feldman & Shripad Tuljapurkar (2000), Sydney B. Westley and Minja Kim Choe(2007) 등으로 예를 들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하여 인도나 중국, 네팔, 말레이시아 등 남아선호가 강한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Guilmoto 2012, Rosina

Nasir and A.K. Kalla 2006, J. Haughton and D. Haughton 1995, 은기수 2013, Chung and Das Gupta 2007, Ulla Larsen et al. 1998 등).

여러 연구를 통하여 아시아권 다른 국가들 보다 한국과 베트남의 남아선호가 강한 나라로 나타나 많은 사회학자의 관심을 가졌다(D. Hollander 1996, Ulla Larsen 1998, 은기수 2013). 한국의 경우 출생성비 차가 점차 나타나다가 1990년에 최고점에 도달하고 다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한국의 남아선호에 대한 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60 년대부터 국가에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수행하여 출산율을 억제하려고 하였다(Andrea Den Boer & Valerie Hudson, 2017). 이 가족계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아선호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조남훈 서문희, 1994; 김진수, 1997). 경제개발을 하면서 가족 계획 사업을 수행한 결과 1990 년대에 들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0(1960 년대)에서 1.6 으로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떠나 남아선호로 출생성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최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태아성별감별이 가능하게 되어 아들이 아닌 경우 태아를 낙태하여 출생성비 차가 나타났다. (Ulla Larsen et al., 1998, Dudley L. Poston et al., 2003). 2000 년대부터 한국의 출생성비가 정상으로 복귀하며 남아선호가 점차 약화되어서, 이 후 연구들의 내용은 산업화

사회와 그로 인해 약화된 남아선호 관계를 중심으로 하였다.(Elenor Jawon Choi and Jisoo Hwang, 2015; Woojin Chung and Das Gupta, 2007).

한국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합계 출산율도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감소되었고 출생 성비도 자연상태의 출생 성비로 복귀하였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남아선호도 약화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데에 근대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Chung and Das Gupta, 2007). 본 연구에서 정우진과 모니카 다스 굽타는 한국에서의 남아선호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그 남아선호가 산업화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산업화 이전에 한국 사회가 엄격한 부계 가족제도의 사회이며 여성에게는 경제적 기회나 사회적 지위가 제한되었다. 부계 가족제도의 모든 권한은 남성에게 부여하며 아들을 낳지 않는 것이 효도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친 현대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중에 점점 약화되는 남아선호의 사회적 변화가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적인 변화보다 여성들의 교육으로부터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과 산업화 과정, 또한 정부의 정책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결합으로 한국에서의 남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근대화라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자녀 성선호 연구 분야에 큰 기여를 하였다. 남아선호 태도를 약화시키는 데에는

근대화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남아선호 태도를 약화시키는 데에 국가의 정책이라기보다 남아선호의 근원인 유교의 문화적 가치와 가부장적 가치의 약화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전통 사회에서 전통적 문화와 가치관으로 남아선호가 강했지만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 형태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전통적 가치관도 변경되기 때문이다(은기수, 2013). 또한 경제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된 한국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은 출산율을 감소하고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절대성을 약화시킬 뿐 그 본 바탕을 바꿀 수는 없고 남아선호라는 가치관을 없앨 수는 없다(공세권, 1986).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에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베트남의 남아선호와 친족구조에 대한 Guilmo(2012) 연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09 년도 베트남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친족구조(kinship structure) 및 민족 조성과 연결시켜서 베트남에서 최근에 상승된 출생 성비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태아 성감별 기술, 감소된 합계 출산율, 그리고 남아선호가 불균형 출생 성비의 3 가지 중간 인자로 제시하였으며 베트남에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친족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가 전통적 부계 제도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Guilmoto 의 노력은 베트남의 남아선호에 대한 연구 분야나 인구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한 것이로 볼 수

있으나 결점이 없는 연구는아니다. 그 이유는 Guilmoto 의 연구에서 베트남의 남부와 북부의 남아선호 강도가 다르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왜 서로 다른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인구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민족은 각 문화와 각 가족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 부계적 가족제도가 있는가 하면 모계 또는 양계적 가족제도도 있다. 그러나 민족 구성을 보면 주류의 인종은 부계 가족제도를 가지는 Kinh(낑)족이며 전체 인구의 86%나 차지하고 모계나 양계적 가족제도를 가진 민족은 소수만 차지한다(UNFPA, 2012).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에 대한 지역적 차이는 인종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베트남과 한국의 남아선호에 관련해서 최근에 Andrea Den Boer 와 Valerie Hudson 의 연구(2017)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저자가 불균형 출생 성비의 일반적인 요소로 남아선호 태도, 태아 성별 감별 기술의 유효성 및 감소된 출산율을 지적하며 그 중에 부계사회와 연관성이 있는 남아선호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과 한국의 인구학적 경제적 배경으로부터 양국의 남아선호 태도를 출생 성비, 국가의 정책 및 가부장적 가치를 통하여 비교하며 학력에 대한 효과까지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아들이 필수적이다'라고 답하는 기혼 여성은 1976 년 61%에서 1991 년 40.5%으로 감소하며 2000 년에 16.2%, 2012 년에

8.2%로 급락하였다. 이러한 남아선호의 감소는 부계 가족제도의 구조를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베트남의 경우 한국처럼 베트남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성비가 감소하기는커녕 2000 년에 자연 출생 성비보다 약간 높게 107.3 에서 2014 년에 112.2 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남아선호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남아선호 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양 국가의 경험으로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생 성비를 감소시키는 데에 학력에 대한 효과까지 보여주는 것은 이 연구의 큰 기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베트남의 남아선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간과하였다. 그것은 바로 지역에 따라 자녀 성선호가 다른 것이다(은기수, 2013). 베트남은 한국처럼 단일민족의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여러가지의 종교를 가진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남아선호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출생 성비가 높고 남아선호가 강한 북부 베트남에만 집중되었고, 그에 비해 남아선호가 강하지 않은 남부 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4. 연구방법 및 자료

이 논문에서 비교 연구 방법과 심층 면접법을 같이 이용하여 유교의 문화적 가치와 가부장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남아선호 태도 및 호치민(Ho Chi Minh)시를 포함하여 남부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 태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주요 부분은 2 장으로 나누며 전반부에 한국과 베트남의 통계자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의 보고자료, 그리고 2006 년 동아시아 사회 조사[4](EASS) 및 2010 년 베트남 가족 조사 결과[5]를 활용하여 성, 연령, 교육수준이라는 변수를 통하여 양국의 남아선호 및 그에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고 양적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 다음 후반부에 2006 년 EASS 및 2010 년 베트남 가족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부장적 가치와 유교 문화의 결과물인 가족가치를 비교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자녀 성선호 또는 남아선호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베트남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을 참고로 왜 남아선호가 베트남이 강한지 설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비중을 보다 조금 더 기울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했 듯이 베트남에서

[4] East Asian Social Survey 2006.

[5] Vietnam Family Survey 2010 Awareness and attitudes about family in Comparative Asian Family Survey Project led by Ki-soo Eun and Emiko Ochiai (Kyoto University).

지역별 출생 성비가 다르며, 남아선호가 북부에 비해 남부는 그만큼 강하지 않다. 어떤 요인으로 같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지 남부 베트남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남아선호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베트남 GSO (General Statistics Office)자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의 보고자료를 활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심층 면접법으로 베트남 사람들의 남아선호 태도를 조사할 것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베트남의 남아선호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비정상적으로 높은 출생 성비나 북부 베트남 특히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남부 베트남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심층 면접법이 가장 합리적으로 본다.

남아선호는 연령별 차이가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남아선호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심층 면접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되지만 연령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로 하고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참여하고 불가능한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심층 면접에 이용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결혼한 지 얼마 되었는가?

② 연애 결혼인지, 아니면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가?

③ 지금 자녀의 수 및 성별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 (예: 1 남 1 녀 등)

④ 여아를 좋아하는가? 남아를 좋아하는가? (아이가 있을 경우)

⑤ 첫 아이는 여아를 원하는가? 남아를 원하는가?

⑥ 아이는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여아를 좋아하는가? 남아를 좋아하는가?

⑦ 자녀를 몇 명 나을지 부부가 상의하는가?

⑧ 부모님은 아들이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⑨ 응답자 본인도 아들이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⑩ 아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아들은 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⑪ 아들과 딸 중 나의 노후의 삶에 누가 더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제 2 장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 및 관련 사회적 이슈

1. 지역적 배경 및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

동아시아에서 유교, 불교, 도교 등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여 다양한 문화 기반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자녀에 대한 성 선호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남아선호 사회가 있는가 하면 여아선호 또는 무성선호 사회도 있다. 2006 년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6 개국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사회조사(EASS) 및 2010 년도 베트남 가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는 무성선호 사회의 성격을 띄는데 반면에 한국과 베트남은 남아선호 사회의 성격이 띄고 있다(<표 1> 참고).

<표 1> 동아시아의 자녀 성선호 (단위: %)

Country	Son preference(%)	Daughter preference(%)	No preference(%)
Korea	42.04	34.23	23.74
Vietnam	56.77	8.2	35.03
*China	25.37	9.41	65.21
*Japan	23.34	29.18	47.48
*Taiwan	21.23	11.66	67.11
*Thailand	22.28	30.57	47.15
*Malaysia	17.72	11.55	70.72

(* 참고로 제시함)

자료: 2006 년 동아시아 사회조사 및 2010 년 베트남, 태국 가족조사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성선호 사회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성선호의 비율이 높으면서 남아선호 및 여아선호 비율과 큰 차이가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일본과 태국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무성선호가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남아선호 비율이 여아선호 비율보다 더 높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여아선호(9.41%)보다 남아선호(25.37%) 비율이 확연히 높다. 반면 대만과 말레이시아에서 그 차이는 5~6% 밖에 되지 않았다. 일본과 태국의 경우 무성선호 사회의 성격이 띄지만 남아선호 및 여아선호 비율을 볼 때 남아보다는 여아를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 남아선호의 비율이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선호가 강한 사회인 한국과 베트남에서도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남아선호가 강하면서(42.04%) 여아선호 비율도 그만큼 높은 것으고 나타나며(34.23%) 무성선호의 비율이 낮다. 반면에 베트남에서 남아선호의 비율이 한국에 비하여 훨씬 높으며, 여아선호의 비율이 비교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무성선호도 한국보다 더 높다.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강한 남아선호 사회로 보이고 있는데 남아선호 그 자체가 같은 모습인가? 한국의 경우 급격한 변동으로 압축적

근대화(compressed modernization – 장경섭, 2011)로 세대 간에 가치관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극명하다(은기수, 2013). 또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양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따라서 성평등이나 교육 수준도 많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전통 사회에 비해 현대사회에서 남아선호 태도가 성별,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 연령, 그리고 교육 수준별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베트남 간에 남아선호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남성은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것은 양 국가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남성은 아들을 더 선호하고 여성은 딸을 더 선호하며, 자녀의 성선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베트남의 경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하고 심지어 아들을 선호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한국과 베트남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한국에 비하면 베트남에서 무성선호가 더 강한 모양이지만 무성선호에 대한 성별의 차별성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다. 즉 한국은 자녀에 대한 성별에 대한 선호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2>한국과 베트남의 성별 자녀 성선호 (단위: %)

	한국				베트남			
	아들	딸	상관없다	합계	아들	딸	상관없다	합계
남성	45.93	26.69	27.39	100	56.07	5.00	38.93	100
여성	38.92	40.27	20.81	100	57.35	10.93	31.71	100
합계	42.04	34.23	23.74	100	56.77	8.20	35.03	100

자료: 2006 년 동어사아 사회조사 및 2010 년 베트남 가족조사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남아선호가 훨씬 강한 한국과 베트남은 앞에서 성별 자녀 성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별 뿐만 아니라 연령별 자녀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 대와 30 대 연령층을 제외하고, 나머진 연령층에서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남아선호 태도가 점점 강해지며, 여아선호는 20 대 연령층에서 가장 강하고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여아선호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남아선호가 가장 강한 것은 30 대와 60 대의 연령층에서 관찰 되고 30 대에서 60 대 사이에 남아선호의 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여아선호에 또한 20 대 연령층에서 가장 강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아선호가 약해지는 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여아선호는 한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남아선호가 한국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남아선호가 점점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한국과 베트남의 연령별 자녀 성선호 (단위: %)

연령	한국				베트남			
	아들	딸	상관없다	합계	아들	딸	상관없다	합계
20 대	33.93	45.36	20.71	100	47.89	16.20	35.92	100
30 대	33.51	42.53	23.97	100	58.90	9.13	31.95	100
40 대	39.00	30.62	30.38	100	57.14	7.94	34.92	100
50 대	43.35	32.15	32.15	100	58.14	4.94	36.92	100
60 대	64.58	18.75	16.67	100	60.37	6.71	32.93	100
합계	39.69	35.76	24.54	100	57.09	8.12	34.79	100

자료: 2006 년 동아시아 사회조사 및 2010 년 베트남 가족 조사

이상으로 성별, 연령별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같은 강한 남아선호 사회인데도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변수인 교육 수준으로 양 국가의 남아선호를 살펴보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표 4>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교육 수준별 자녀에 대한 성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한국과 베트남의 교육별 자녀 성선호 (단위: %)

	한국				베트남			
	아들	딸	상관 없다	합계	아들	딸	상관 없다	합계
초등	64.11	16.75	19.14	100	58.10	6.67	35.24	100
중고등	42.56	34.88	22.55	100	61.47	6.64	31.90	100
고등 이상	35.64	38.38	25.98	100	40.55	14.17	45.28	100
합계	42.06	34.19	23.75	100	56.81	8.21	34.98	100

자료: 2006 년 동아시아 사호조사 및 2010 년 베트남 가족 조사

<표 4>에서도 역시 한국과 베트남에서 교육 수준별 자녀에 대한 성선호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볼 수 있 듯이 한국의 경우 교육 수준의 높아짐에 따라 남아선호 보다는 여아선호와 무성선호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남아선호가 가장 강한 것은 중고등 학력을 가지는 집단에서 관찰되며, 고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집단에서는 무성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선호가 약해지는데, 베트남에서 또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선호도가 약해지나, 딸선호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수 있듯이 한국보다는 베트남이 남아선호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베트남의 남아선호를 성, 연령, 교육 수준의 변수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같은 남아선호가 강한 사회인 한국과 베트남은 성, 연령, 교육 수준에 따라 남아선호의 양상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원인은 한국의 경우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이 3 가지의 변수로 자녀 성선호를 검토해도 충분할 수 있으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베트남 인구는 주류 민족인 낑(Kinh)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외에 수많은 소수 민족도 있으며, 각 민족의 가족제도가 다르고 모계나 양계 가족제도를 가지는 민족에서는 남아선호가 약하다. 또한 지역상으로 북부와 남부의 자녀 성선호가 서로 다르고 남아선호가 북부에서는 강하지만 남부에서는 약하다. 이러한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차이는 후술하겠지만 베트남에서 성, 연령, 교육 수준 등의 변수를 제외하고 인종과 지역도 남아선호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2. 한국과 베트남의 남아선호에 관한 사회적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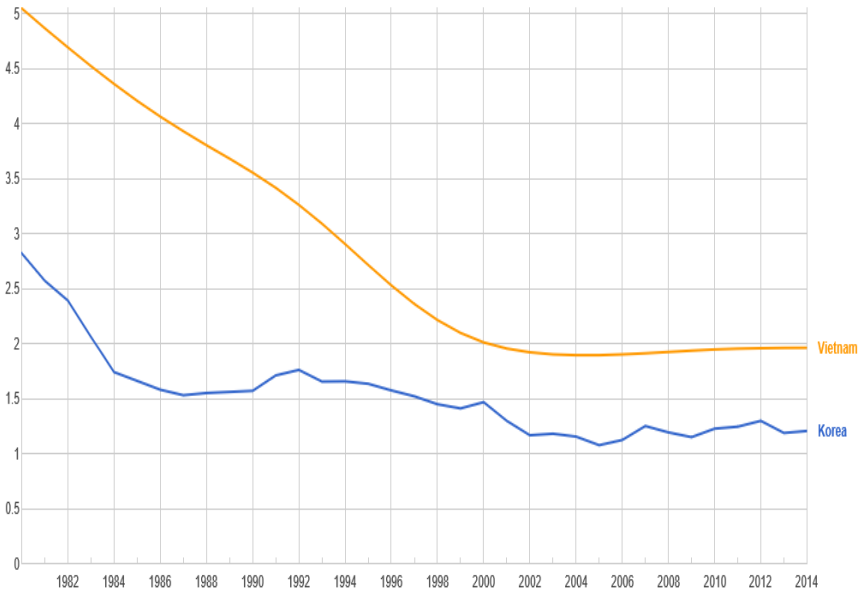
2.1. 불균형 출생 성비

많은 인구학자들은 남아선호가 출산율이나 출생 성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출산율에 비해 출생 성비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딸을 먼저 가진 경우 아들을 가지기 위해 출산 횟수가 늘이는 경향이 있지만 반면에 아들을 이미 가진 경우에는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됨으로써 합계 출산율이 변동이 거의 없으나 출생 성비가 다소 변동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아선호가 강한 사회에서 합계 출산율이 감소되면 여아를 없애야 한다는 압박이 고조되어 출생 성비의 불균형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Das Gupta et al, 2003). 그렇다면 남아선호가 강하고 이 연구의 대상인 한국과 베트남의 출산율의 변천에 따라 출생 성비가 어떠한 변동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에서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1960 년대 초반부터 실시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으로 합계 출산율이 6.0 명(1960)에서 1970 년에는 4.5 명으로 낮아졌으며, 1983 년에는 인구대체수준까지 낮아졌다. 그 후 합계출산율은 1980 년대 중반부터 1990 년대 중반 사이에 1.6-1.7 명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000 년대에 들어가서 합계 출산율이 한번 더 감소 추이를 보이고 2008 년에 1.19 로 떨어졌다.

베트남에서 남과 북이 통일되기 전부터 북부에서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1961 년도에 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주로 북부에서만 집행되었다. 통일 후 가족계획은 국가 전체에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합계 출산율은 6.3(1961 년)에서 5.3(1975 년)로 떨어졌다. 1986 년도에는 '도이머이'(Đổi mới –The renovation) 정책을 도입하면서 경제개발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인구증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으로써 1988 년에 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결정을 내려 가족계획사업을 강화시켰다. 결과로 합계 출산율은 2.2(1998)로 감소되어 2000 년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하고 최근까지 그 수준을 유지해 왔다(GSO – General Statistics Office).



<그림 1> 한국과 베트남의 합계출산율. 자료: World Bank

한국과 베트남의 출생 성비의 변천에 대해서는 <그래프 2>에서 관찰할 수 있다. 1982 년도에 출생 성비가 106.8 로 자연 상태의 출생 성비에 머물다가 그 다음 해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 년에 116.5 로 정점으로 올라간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8 년에 다시 자연 상태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성비가 급증하는 현상은 희망 자녀의 수가 줄어들지만 남아 선호는 여전히 강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 등으로 태아의 성을 조기에 감별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은 임신을 기피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에 따라 출생 성비의 불균형은 정점으로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Kim, 1997). 1990 년도에 급증된 또 다른 이유에 대해 백말띠인 1990 년에 태어난 여자가 '기가 세고 팔자가 억세다'는 미신으로 여아의 경우 낙태하거나 다음 해에 출생신고를 했다는 가설도 있다(Park and Cho, 1994).

그 후 태아의 성 선별과 인공임신중절은 생명윤리문제가 제기되면서 태아의 성선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최근 남아 선호가치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출생 성비는 2005 년 이후 정상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남아선호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출생 성비가 한없이 떨어짐과 같이 사람들이 아들이 아닌 딸을 더 선호한다는 뉴스도 보도되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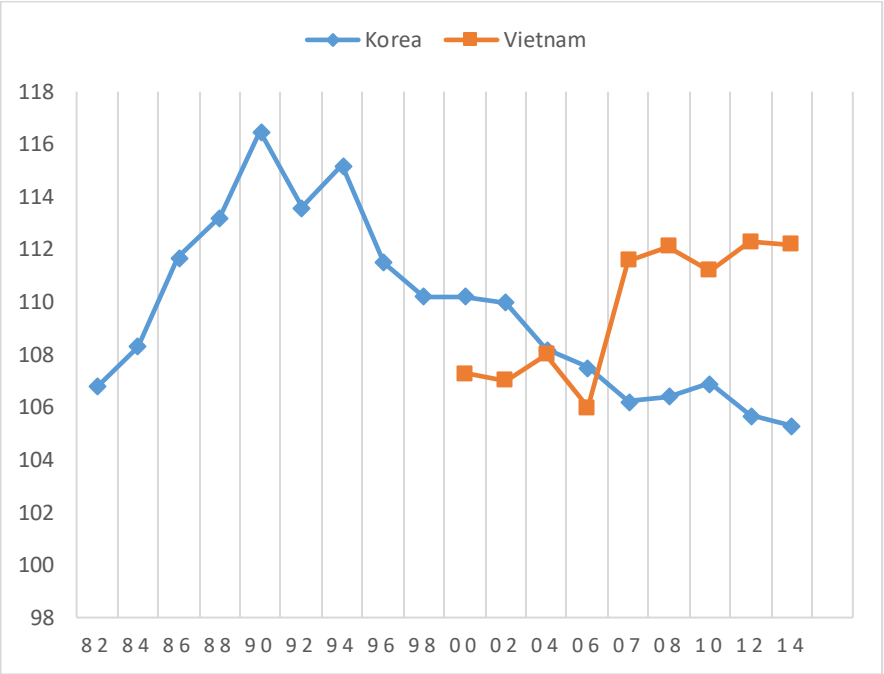
반면에 베트남은 1999 년 이전의 자료가 없지만 2000 년부터 2006 년까지 통계 자료를 보면 출생 성비는 자연 상태와 큰 차이가 없으나 2007 년부터 111.6 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까지

[6] 13.12.18 KBS 뉴스 "아들보다 딸" 한국 양성 평등 사회로… https://www.youtube.com/watch?v=YZYdIMthraE

[14.09.09 뉴스데스크] '아들선호' 옛말, "딸이 좋다"… 지난 해 남아 출생 비율 최저 https://www.youtube.com/watch?v=SA0_xDoMh7M

지속적으로 높은 지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소할 경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달리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출생 성비의 변천을 다음 <그래프 2>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프 1> 한국과 베트남 연별 출생 성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베트남 GSO (General Statistics Office)

<그래프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은 베트남에 비해 불균형 출생 성비가 일찍부터 일어났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1990 년에 극에 도달한 후부터 점점 자연 상태로 내려갔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출생 성비가 뒤늦게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한국에 비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며 현재가 가장 출생 성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2012 년에 112.3 으로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출생 성비를 유지할 것으로 우려된다.

남아선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은 가족 규모의 감소와 출생 성비의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베트남의 총 출생 성비와 합계 출산율의 변천을 관찰한 후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 한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감소되어 가는 1980~1990 년 시기에 출생 성비가 증가하는 반면에 베트남에서 합계 출산율이 2.0 으로 안정한 상태에서 출생 성비가 급증한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2006 년까지만 해도 자연 상태에 있던 베트남의 출생 성비가 2007 년에 111.6 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출생 성비의 급증에 대한 이유는 태아 성선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다(Bang et al., 2011). 이러한 태아 성선별이 가능하게 한 것은 초음파 검사였다. 2003 년부터 2006 년 사이에 베트남에서 “Craze of

ultrasound"(초음파의 열풍)이 증가하였으며임산부들이 임신하는 동안 최소 평균적으로 최소 3.5 번(농촌권), 최대 6 번(도시권)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Guilmoto, 2012). 그리고 Guilmoto(2009)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초음파 검사 건수는 100 만 건(1998 년)에서 2002 년도에 370 만 건, 그리고 2007 년도에 1,080 만 건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Bang(2011)의 연구에서 초음파 검사의 보편화와 출생 성비의 연관성을 밝혔는데 높은 출생 성비(110.8)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이미 알고 있거나 피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서 나타난 것이다(태아 성별을 모르는 여성들 가운데 출생 성비가 105.9 였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파악함으로써 출생 성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80 년대 후반에 합계 출산율이 1.63 으며 30 대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자녀수는 인구대체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보다 더 낮은 1.8~1.9 로 감소되었는데 여전히 강한 남아선호 사상으로 부부들이 아들을 최소로 한 명 가지려고 하며, 그로 인해 대부분 여성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아들을 가진 후 임신중절이나 피임을 시도할 경향이 있었다(Kim, 1997).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인은 같은 시기에 초음파 검사가 널리 알려져 태아 성감별이 가능하게 되어, 태아 성 감별로 성 선별

낙태였다(Poston et al., 2003). 그 결과 남태아 중에 정산 출산은 94.7%로 나타나는 반면에 여태아 중에 81.1%만 정산 출산이며 17.4% 여태아가 인공유산으로 임신 중단되었다(Kim, 1997).

총 출생 성비뿐만 아니라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를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의 강한 남아선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는 어떻게 남아선호 사상을 보여주는지 다음 표를 보도록 하겠다.

<표 5> 한국의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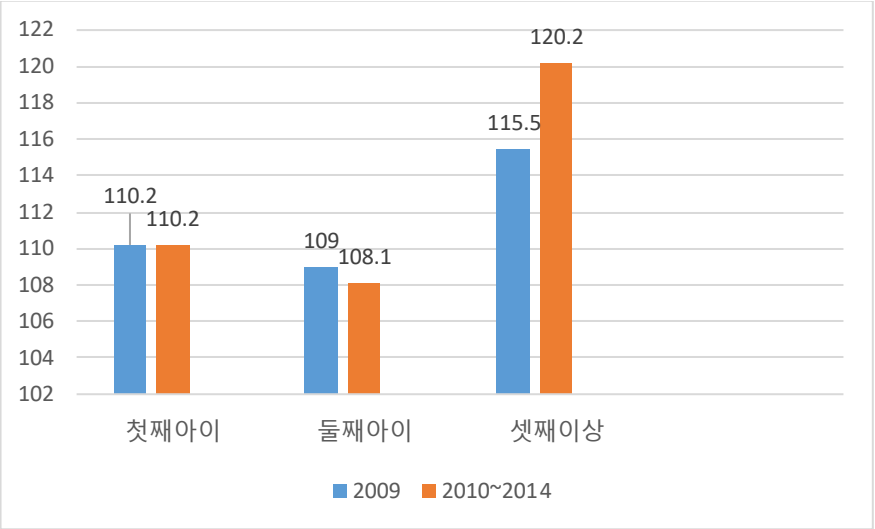
	총 SRB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1990	116.5	108.5	117.1	193.3
1994	115.2	106.0	114.1	205.4
1998	110.2	106.0	108.1	146.0
2002	110.0	106.5	107.3	141.4
2006	107.5	105.7	106.0	121.9
2007	106.2	104.5	106.0	115.7
2011	105.7	105.0	105.3	109.5
2014	105.3	105.6	104.6	106.7

자료: 통계청

<표 5>에서 흥미로운 점은 1990 년대 총 출생 성비가 높게 나타났지만 이에 비해 첫째아이의 출생 성비가 비교적 낮지만 둘째,

그리고 셋째아이에서 출생 성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1.6 으로 떨어졌고 이상적인 자녀의 수가 2 명 이하로 감소되었는데 남아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자녀의 수 안에 아들 최소 한 명을 가지고 싶은 것을 의미하며 첫째아이에 대한 성선호가 거의 없어 보이지만 둘째아이부터 성선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전 출산에서 아이의 성별이 다음 출산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한국에서의 출산율과 남아선호에 대한 연구(Larsen et al., 1998)에서도 첫 출산이 5 년을 경과하고 딸을 가진 여성들 중에 둘째아이를 가지는 비율은 90%인 반면에 아들을 가진 여성들에게서는 84%로 약간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3 번째 출산 이후에는 딸 2~3 명을 가진 여성 중 72%, 아들 2~3 명을 가진 여성 중 각각 37%와 32%로 다른 성별의 아이를 갖고 싶어 하였다.

<그래프 2> 베트남의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



자료: 2009 년 베트남 인구 총조사, 2010-2014 중간 인구 조사

베트남의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를 보면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1998~2007 시기와 비교할 때 베트남에서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의 출생 성비가 크게 자이가 안 보이지만 셋째아이의 출생 성비가 양 국가에서 확연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첫째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부부들의 다음 출산 계획이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와 베트남의 차이는 <그래프 2>에서 볼 수 있는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의 출생 성비의 차이다. 한국에서 첫째아이에 비해 둘째아이의 출생 성비가 더 높은 반면에 베트남에서 첫째아이의

출생성비가 높은것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는 베트남에서 대부분 첫째아이가 아들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태아 성선별적 인공유산

앞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불균형 출생 성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에 관련해서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출생 성비의 원인은 태아 성선별적 인공유산이라고 밝혔다(Kim, 1997; Bélanger and Oanh, 2009). 양 국가의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자료에서 나타난 셋째아이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출생성비가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다(<표 5> 및 <그래프 2> 참고).

한국의 경우 인공유산(induced abortion)은 출산율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정부의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허용되었다. 1990 년에 기혼 여성의 인공유산 건수는 평균적으로 인당 1.9 로 추산되었으며 당시 합계 출산율에 비해 더 높은 것이다(Westley, 1995).

한국에서 성선별적 인공유산은 1980 년대부터 1990 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중에 1988 년에 19,000 여건이던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는 전통적으로 여아 출산을 기피하는 말띠 해였던 1990 년에 무려 30,000 여건으로 증가한 후 1991 년에 20,400

여건, 1992년에 24,900여건으로 감소되었으나 1993년과 1994년은 각각 29,600 여건과 19,300 여건 등으로 다시 30,000 건 대에 육박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한 해 태어날 수 있는 전체 여아의 약 9%에 해당하는 것이며, 백분율로 보았을 때 여아 100명 중 약 9명이 생명을 빼앗긴 것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자료).

이렇게 한동안 한국에서 초음파 검사로 태아 성감별과 성선별적 인공유산은 이슈가 되었으며 1993 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관리과에서 서울에 사는 280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남아선호 사상과 출산율'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아들을 낳기 위해 임신중절 수술을 경험한 자가 5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7].

[7] "아들 낳기 위해 중절수술" 53%, 한겨레, 1993.03.07.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30700289108011&ed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03-07&officeId=00028&pageNo=8&printNo=1494&publishType=00010

<그림 2> 한겨레 신문기사 (1993.03.07 일자)

이렇게 논란이 된 성선별적 인공유산을 줄이기위해 한국 정부에서 1987 년에 태아 성감별 검사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였지만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Das Gupta, 2016). 왜냐하면 낙태법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딸과 아들이 동등한 상속권을 규정하는 1989 년 가족법도 남아선호를 약화하는 데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Shin, 2006; Chung and Das Gupta, 2007).

베트남의 경우 현재 전세계에서 인공유산율이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8]며 아시아권에서 제일 높은 나라로 이슈가 되었다[9]. 베트남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족계획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출산율을 통제하기 위해 1973 년 모자보건법에 의해 1975 년부터 인공유산이 허용되었고, 임신 22 주 이내의 임산부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1976 년부터 1987 년사이에 인공유산 건수가 70,881 에서 881,176(신고 건수만 포함)으로 10 배 이상 증가하였다(Goodkind, 1996). 1995 년에 총 인공유산 건수는 130 만 건이 넘었으며 인공유산을 시도하려는 여성 중에 60~70%는 30 대 이상의 연령층이었다(WHO, 1999). 2003 년에 인구법령(Population Ordinance)이 발행하여 태아 성선별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집행으로 태아 성선별과 인공유산을 통제하는 데에 여전히 부족하다(Pham et al., 2011; Boer and Hudson, 2017).

베트남에서의 태아 성선별적 인공유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볼 수 있다. 베트남 하노이(Hanoi)지역을 중심으로

[8] The Highest Abortion Rate in Asia: Why is Vietnam's Abortion Rate So High? https://www.mercatornet.com/demography/view/14753

[9] Abortion Rate in Vietnam Highest in Asia http://e.vnexpress.net/news/news/abortion-rate-in-vietnam-highest-in-asia-3476746.html

의료시설(병원)에서 중절 수술을 경험한 885 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딸을 많이 낳거나 아들이 없는 여성들이 두번째 중절 수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anièle Bélanger and Khuat Thi Hai Oanh, 2009). 이것으로 임신 중절수술은 남아선호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Ball. H, 2014). 물론 베트남의 인공유산율은 태아 성선별을 하는 경우와 혼전 임신의 경우를 포함 시키지만 대부분 혼전 임신의 경우 큰 병원에서 인공유산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베트남에서 혼전 임신은 여전히 금기로 여기므로 혼인 없이 임신한 여성들이 대부분 개인 병원에서 비밀로 임시 중절 수술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의 인공유산 현황에 대한 Wm. Robert Johnston[10] 2000 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인공유산 건수 또는 인공유산율이 계속 변천해 왔다. 2000 년에 688,029 건수로 신고된 인공유산은 2001 년에 1,040,029 건수로 증가한 후 점점 감소되다가 2005 년에 899,676 건수로 다시 증가하였다. 인공유산율도 마찬가지로

[10] Historical Abortion Statistics, Vietnam.
http://www.johnstonsarchive.net/policy/abortion/ab-vietnam.html

33.88%(2000 년)에서 42.03%(2002)로 올라간 다음에 점점 내려가다가 2005 년에 39.16%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2003-2006 년 사이에 높은 인공유산율과 초음파 검사를 받는 여성의 증가함이 2007 년 베트남에서의 급증된 출생 성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표 6> 2000~2009 년 베트남의 인공유산 현황

년도	정상 출산 건수	인공유산 건수	인공유산율(%)
2000	-	688,029	33.88
2001	1,697,000	1,040,029	38.00
2002	-	976,770	42.03
2003	1,292,086	570,467	29.54
2004	1,249,191	619,168	30.97
2005	1,252,882	899,676	39.16
2006	1,243,463	834,558	37.13
2007	1,326,464	372,502	21.93
2008	-	332,154	18.85
2009	-	379,212	20.94

자료: Johnston Archive: Historical abortion statistics, Vietnam

태아 성선별적 인공유산의 예로 지난 2015년 5월 27일에 아들을 낳기 위해 18번이나 낙태를 시도한 여성에 대해 보도한 뉴스를 들 수 있다[11]. 뉴스 내용에 나온 여성은 딸 4명을 두었고 마지막으로 아들 한 명 낳으려고 반복적으로 낙태를 시도하였으며 장남인 남편은 아들을 두기 위해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12].

NEWS "또 딸이네" 아들 낳으려 '18번 낙태'한 여성

페이스북노출 1,046,078 | 트위터확산 216,606 | 2015.05.30 12:07

박정원

- 규현을 격하게 아끼는 대한항공
- 2015 '칸 광고제'에서 그랑프리 수상한 광고

스토리 본문 | 수정/본문 함께쓰기 | 함께 쓴 히스토리(1) | 관련 스토리 쓰기

첫머리 아들 낳으려 낙태 18번이나 한 여성

2015.05.30 12:07:47 | 박정원

메리츠화재 100세 보장 비갱신형 암보험 인기폭주!
100세까지 보험료 오르지않는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견적 암진단금 얼마?

[유튜브 'Tin nóng hải' 캡처]

아들을 낳기 위해 무려 18번이나 낙태를 한 베트남 여성의 사연이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현지시각) 베트남 국영방송 VTV는 장남인 남편을 위해 아이를 계속해서 낙태한 베트남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해당 여성은 장남이었던 남편이 딸 4명을 낳은 이후 몹시 실망하는 모습에 낙태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딸을 낳은 이후 남편과 불화가 잦아졌고 가족 사이의 골이 깊어졌다.

그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 문제로 우울증을 겪었다. 남편은 여전히 아들만을 선호했으며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겼다.

이 여성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자살을 감행하기에는 아이들이 가엾었다며 답답한 신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정확한 낙태 횟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인터뷰에 참여했던 방송 진행자는 18번이라고 전했다.

<그림 3> - 아들을 가지기 위해 여러 번 낙태를 시도한 여성에 관한 신문기사

[11] 베트남 VNExpress 2015.05.27 일에 보도된 내용 http://vnexpress.net/tin-tuc/cong-dong/nguoi-phu-nu-pha-thai-18-lan-de-sinh-con-trai-gay-soc-cong-dong-3224944.html.

[12] 한국 뉴스에 보도된 내용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20702

3. 소결

동아시아세어 한국과 베트남은 강한 남아선호 사회로 눈에 띄었다. 제 1 장에서 2006 년 동아시아 가족조사와 2010 년 베트남 가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를 살펴보았다. 남아선호 사회라고 해서 각 사회에서 서로 비슷한 점도 있으면서 차이점도 존재한다.

우선 남아선호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변수를 통해서 볼 때 자녀 성선호에 대해 양 국가의 비슷한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들이 아들을 더 선호하고 한국 여성들의 남아선호 비율과 여아선호 비율이 거의 비슷한 반면 베트남에서 딸을 선호하는 여성이 아들을 선호하는 여성에 비해 비교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살펴볼 때 한국에서 남아선호가 60 대 연령층에서 남아선호가 가장 강하게 보였으며, 베트남 또한 60 대에서 남아선호가 강하게 나타나며 나이가 많을수록 남아선호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남아선호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한국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남아선호도 약해지며, 베트남에서 중고등 교육 수준의 집단에서 남아선호가 강하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 일수록 남아선호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선호로 인해 아들을 낳기 위해 태아 성감별을 하여 인공유산으로 출생 성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한국에 비해 베트남에서 뒤늦게 일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양 국가의 비슷한 사회적 현상이다. 특히 이러한 높은 출생 성비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 성감별이나 여태아 낙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양 국간의 또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이다. 한국에서 총 출생 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1990 년대에 첫째아이의 출생 성비가 자연 상태에 머물고 둘째아이부터 출생 성비가 증가한 반면 베트남에서 첫째아이부터 출생 성비가 높았다. 이는 베트남에서 '아들 최소 한 명을 가져야 한다'는 욕구가 더 강하며 딸과 아들이나 딸 2 명을 동시에 갖는 것에 비해 아들 한 명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한국의 경우 첫아이에 대해 특정한 성선호가 없고 둘째아이부터 아들 최소 한 명을 가져야 한다는 각오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여태아를 낙태하여 둘째아이의 출생 성비가 높게 나타났고 베트남에서 첫째아이부터 아들을 원하고 아들을 낳았으면 안심되어 둘째아이까지 낳을 필요없거나 둘째아이에 대한 특정한 성선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3 장 유교 문화 및 가부장적 가치 측면으로 보는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

1.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 가치

서론에서 서술한 것처럼 남아선호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뿌리 깊게 내려 문화.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다. 장자(아들)가 가계를 계승하고 재산 상속과 가문을 담당하며, 유교 문화권에는 장자만 제사를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전통사회에서 아들을 중시하며 남아선호 사상은 가족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남아가 중시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가지는 것과 아들의 수는 여인의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인의 죄이며 아들이 없는 가족은 대를 못 잇는다 라고 인식되기도 했다. 한국과 베트남도 이러한 성격을 지니며 전통적 가족제도의 근간은 부계제의 한 형태인 직계가족제도로 장자를 통하여 가계를 계승하는 원칙으로 된 부계제의 형태이다. 따라서 장자는 결혼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같이 살면서 특별한 자리와 그 대우를 누렸다. 또한 장자는 우선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의무를 맡았으며, 이에 따라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우대를 받았다. 반면에 딸은 결혼한 후 남편의 가족으로

편입되어 친정집의 집안일을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Sidney B. Westley, 1995).

전통사회에서 전통 가족은 위에 설명된 모습인데 현대에 들어가서 한국과 베트남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 규모가 많은 변화를 보였다. 대가족이 줄어 핵가족, 한부모 가족, 심지어 일인 가족(1 인 가구)까지 늘어가는 등 가족 형태가 변했다. 이러한 전통 가족 형태에서 현대 가족 형태로 변하는 과정에서 가족 가치들도 달라졌는가? 전통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가치로 한국과 베트남에서 강한 남아선호 사회로 보였으나 현대사회에서 그 가족가치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의문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가치를 비교하면서 가족가치는 양 국가의 남아선호에 어떠한 작용을 보이는지 살펴보겠다.

동아시아 사회조사(2006) 및 베트남 가족조사(2010)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가부장적 가족가치를 아버지의 권위, 남성우위, 아들의 필수, 장자의 역할 등 4 가지의 변수로 살펴보았다. 각 변수에 적합한 문항을 이용하여 7 점 척도로 측정하고 평균 응답값을 산출하였다. 7 점 척도는 7 점이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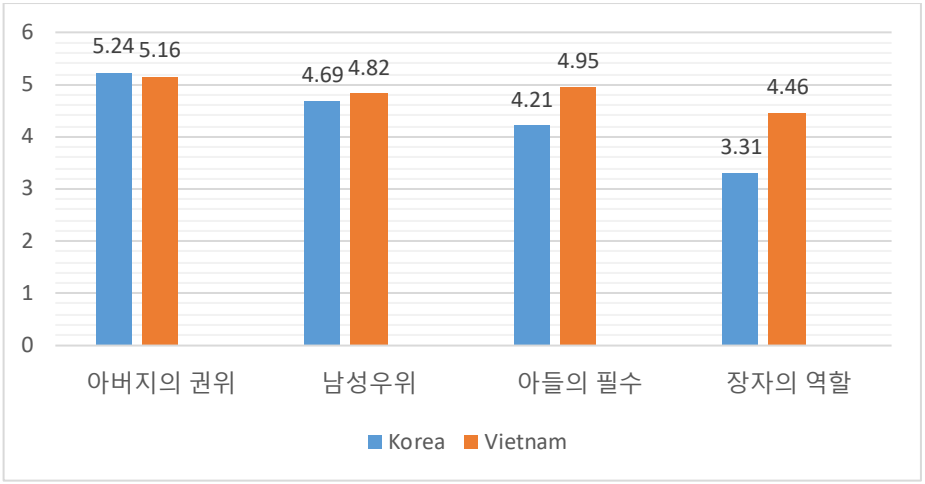
가족가치를 나타내고 1 점이 매우 진보적인 가족가치를 나타낸다. 각 변수에 이용된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가족가치 측정 변수 및 이용 문항

변수	이용 문항
아버지의 권위	•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남성 우위	• 남편은 부인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한다. •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들의 필수	•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 적어도 아들이 하나 있어야 한다.
장자의 역할	• 큰 아들은 재산을 상속하는 데에 큰 몫을 가져야 한다.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가치에 관한 조사결과는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3>: 한국과 베트남의 가부장적 가족 가치



자료: 2006 년도 EASS 및 2010 년도 베트남 가족 조사 (은기수, 2013 자료 인용)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변수에 따라서 한국과 베트남의 가부장적 가족가치에서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한다. 우선 '아버지의 권위' 및 '남성우위'라는 가족가치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정수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아들의 필수' 및 '장자의 역할'에서 양 국가의 정수값이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권위'에서 한국의 정수값은 5.24 로 나타나며 베트남(5.16)에 비해 약간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베트남에서도 가족제도가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와 양계적인

가족제도도 같이 존재하고 유교 문화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남성우위’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의 정수값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권위’와 달리 이 변수에는 베트남이 한국에 비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에서 남성 중심적 가족가치 즉 전통적인 가족가치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가부장적 가족가치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굳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베트남에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불공평 또는 부계 거주 형태로 베트남에서 가부장적 가족가치의 기초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Boer and Hudson, 2017).

나머지 ‘아들의 필수’ 및 ‘장자의 역할’에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 변수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며 베트남의 정수값이 더 높은 것으로 베트남은 더 보수적이고 더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아들의 필수’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정수값이 모두 평균값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강한 남아선호가 여전히 존재하며 대부분 '적어도 아들이 한 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 국가의 '아들의 필수'를 성, 연령, 교육 수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한국과 베트남 성별 아들의 필수

성별	한국	베트남
남성	4.93	4.99
여성	4.5	4.91

자료: 2006 년 동아시아 가족조사 및 2010 년 베트남 가족조사

<표 9> 한국과 베트남 연령별 아들의 필수

연령	한국	베트남
20	4.29	4.42
30	4.09	4.74
40	4.50	4.95
50	5.22	5.16
60	5.94	5.38

자료: 2006 년 동아시아 가족조사 및 2010 년 베트남 가족조사

<표 10> 한국과 베트남 교육수준별 아들의 필수

학력	한국	베트남

초등	9.01	5.70
중고등	4.82	5.18
고등이상	4.23	3.86

자료: 2006 년 동아시아 가족조사 및 2010 년 베트남 가족조사

성, 연령, 교육 수준별 살펴볼 때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성별 '적어도 아들이 한 명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보수적이고 베트남은 한국보다 더 전통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그래프과 일치한다. 또한 연령별 살펴보면 한국과 베트남 모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들의 필수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20 대에서 50 대 사이의 연령층에서 정수값이 한국에 비해 높지만 60 대 연령층에서 한국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 아들의 필수도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정수값이 점점 감소하여 양 국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남아선호가 강한 사회이지만 각종 변수를 통해 살펴볼 때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 비하여 베트남에서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가치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남아선도호 더 강하다. 양 국가에서 권위적. 위계 서열적인

가족가치와 남성 중심적 가족가치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며 남아선호가 가장 강한 베트남은 물론이고 여아선호가 강한 한국에서도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 적어도 아들 한 명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교육수준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2. 남부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

2.1. 남부 베트남의 특징

베트남은 북부에서 남아선호가 강한 반면 호치민을 포함한 남부에서는 남아선호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었다(Guilmoto, 2012; 은기수, 2013). 남부 베트남의 약한 남아선호는 가족에서 자녀의 성별 구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지역별 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셋째의 출산 가능성 (2004-2014).

	성별 구성		
	아들 1 혹은 2 명	아들없음	차이
Whole country	17.9%	41.1%	23.2%
Red River Delta	15.0%	54.5%	39.4%
Northern Midlands and Mountains Areas	17.2%	45.1%	28.0%
North and South Central Coastal Areas	23.4%	47.4%	24.1%
Central Highlands	32.6%	50.2%	17.5%
South East	14.3%	26.8%	12.5%
Mekong River Delta	11.7%	23.1%	11.3%

자료: GSO (General Statistics Office)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남부 지역(South East)과 메콩델타 지역(Mekong River Delta)에서 아들이 이미 가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셋째아이의 출산 가능성 차이가 각각 12.5%롸 11.3%로 나타났는데 베트남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에서 아들을 최소 한 명이 있을 때 셋째아이의 출산 가능성이 15.0% 밖에 안 되는 반면 아들이 없을 경우 셋째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54.5%로 격차가 39.4%까지 늘어나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다. 이는 홍강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 베트남에서 남아선호가 여전히 강하고 동남부와 메콩델타

지역을 포함한 남부 베트남에서 남아선호가 강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며 많은 선행 연구와 일치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부 베트남에서 왜 남아선호가 강하지 않은 것이가? 남부 베트남의 산업화 과정은 남아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쳐 남아선호를 약화시켰는가?

사실 베트남의 역사상으로 보면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남부는 북부와 중부 등 다른 지역보다 뒤늦게 형성되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기존 영토에 포함된 지역이다. 15 세기 초기까지도 베트남 영토는 중부 지방까지만이었으며 남부 지방 전체는 참파(Champa)왕국과 캄보디아의 영토이였다. 17 세기 후기부터 북부와 중부에서 낑(Kinh)족의 남하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는데 1835 년이 되어야 거의 현재의 영토가 되었으며, 북부와 중부의 주민들도 이 흐름에 따라 남부로 이민하여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베트남 역사).

가족제도 측면에서도 남과 북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북부에서 전통적인 가족은 부모와 장남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반핵가족형태이며 장남은 상속권을 다른 자녀에 비해 많은 양을 할양되고 조상 숭배와 부모 봉양 책임을 담당하는 반면 남부에서 그

역할은 막내 아들 또는 딸에게도 부여된다. 상속권도 평등하게 자녀들에게 나눠주는데 막내가 조상 숭배와 부모 봉양을 담당하게 되면 많은 몫의 유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Do, 1990).

유교 문화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베트남에 오래전부터 유입되었으며 베트남 전통 사회에서 뿌리 깊게 내려 자리 잡았으나(Vo, 2015)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유학은 지배층에게만 전파되었고 농촌지역에서 불교의 영향이 더 크고 전통적인 가정의 여성은 재산을 관리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지배 하에 오랫동안 있는 북부와 달리 남부는 뒤늦게 베트남 영토에 삽입되며 주민들은 북부와 중부에서 내려온 빈민과 중국에서 이민해 온 자와 다양한 문화와 가족제도를 가지는 원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베트남 영토에 삽입된 남부 지역에서 중국 문화나 유교 문화보다 인도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남부로 내려온 북부와 중부 주민들이나 중국에서 이민해 온 중국인들은 간난함과 정부의 압박을 이탈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려고 전통적인 가치를 접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려고 한다 (Do, 1990).

이러한 지역적 특징으로 남부 베트남에서의 가족가치는 북부랑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남부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남부 베트남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또한 남부 베트남에서도 남아선호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은 다음 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

2.2. 남부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

남부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절에서 재 베트남 유엔인구기금(UNPFA)의 보고 자료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심층면접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면접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되며 제 1 장에서 남아선호가 연령별 차이가 있으므로 20 대, 30 대, 40 대, 50 대 연령층의 기혼 남성과 여성을 각각 인터뷰한 것이다.

유엔인구기금에 따르면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에 있어서 남성 중심적인 가족가치인 문화적 요소, 거주 형태와 상속권에 관한 사회.경제적 요소, 그리고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규범적인 요소 등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른 말로 하자면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는 가부장적 가치가 강한 부계 친족구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UNFPA, 2011).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로 베트남에서 지역적 차이가 있으며 북부에서 남아선호가 강한 반면에 남부에서 남아선호가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부 베트남에서 위에 서술한 지역적 특징으로 자녀 성선호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실제로 남부 베트남에서 남아선호가 약한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러한 의문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에 관련해서 메콩델타 지역 출신 20 대 여성은 다음과 같이 터놓았다.

> “누구나 그렇다. 외동이라고 하더라도... 마음 속에서 누구나 가계를 계승을 위해 아들 한 명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상황을 예로 하자면 우리 신랑이랑 결혼했는데 장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우리 친 부모가 나를 보고 꼭 아들 한 명을 낳아야 한다고... 아들을 낳아야 그 집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그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온 이념이다. 딸을 낳았으면 아들도 낳아야 하는 거... 남편의 동생이나 형이 아들이 없으면 우리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 압박은 대부분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아들이 없어도 되는데 족장이라면 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기혼 여성, 20 대)

이 여성의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북부 베트남 뿐만 아니라 남부 베트남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여성들에게 어느정도 압박을 주기도 하며 여성들의 걱정거리이고도 한다. 또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출산은 이제 여성이나 남성 또는 부부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문제가 되었다. 아들이 낳는지 딸을 낳는지 하는 것은 그 집에서 여성의 지위를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아들을낳기 위해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태아 성감별하며, 여태아는 낙태하는 것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같은 연령층이지만 호치민에서 자라난 다른 20 대 여성은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한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이야기 그 자체로 남자의 성격이 강하여 가계를 담당할 수 있고 약한 동생을 보호해 줄 수 있거나 부모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자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 "개인적으로 아들을 더 좋아하는데 아들도 딸도 모두 가질 수 있으면 더 좋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아들이죠. 첫째는 아들이면 좋다고 생각한다. 아들이면 성격도 강하고 동생을 지킬 수 있고 가정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자녀를 두 명을 둘 것이다.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시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여, 20대, 아들 1명, 메콩델타)

아들을 선호하는 또 다른 30 대 여성은 본인이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를 다른 여성들과 달리 단순하게 '생리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그 자체가 힘들다'는 것으로 밝혔다.

"우리는 아직도 자녀를 가지지 않는데 나중에 한 명만 낳으려고 한다. 우리 친부모도 그렇고 시부모도 손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다. 나는 개인적으로 아들과 딸을 모두 다 가지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아들을 선택할 것이다.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녀이니까 다 좋기는 하는데 아들이면 생리학적으로 딸보다 더 나아서(딸은 나중에 임신하고 출산하면 힘드니까)... 노후 생활은 내가 스스로 내 노후 생활을 담당할 수 있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자녀들이 커서 꼭 나랑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다." (여, 30대, 호치민)

지금까지 3 명의 여성은 아들을 더 선호하거나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아선호에 대한 이유가 각각 다른 것이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압박으로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 측면도 있고 장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이나 단순하게 생리학적 이유로 아들을 딸보다 더 좋아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번째 여성의 노후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다. 앞 절에서 베트남의 가족가치를 살펴봤을 때 베트남에서 여전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번째 여성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에 대해 부담을 안해도 된 것으로 전통적인 가족가치에서 벗어난 것이다. 마찬기지로 다른 30 대 후반 여성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 "우리 남편은(중부지방 출신) 장자이고 밑에 여동생 한 명 더 있다. 우리 남편은 딸이 부모와 가깝다고 해서 딸을 가지고 싶어 한다. 시집에서도 남자를 강요하지 않고 우리 시어머니가 차라리 손녀가 더 좋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딸이 하나 있었고 둘째를 낳을 생각이 없다. 그런데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한 명 더 낳으려고 한다. 딸도 좋고 아들도 좋고 중요한 것은 둘이 있으면 아이가 외롭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딸이 커서 시집에 가서 부모한테 효도를 하지 못해서 남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이 커서 꼭 같이 살 필요없고 잘 살고 일을 열심히 하고 무사하면 되니까."(여, 30대, 딸 1명, 호치민)

이 여성의 경우도 세번째 여성처럼 본인의 노후 생활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하지 않다. 이 경우도 아주 흥미로웠다.

면접 대상자의 남편은 남아선호가강하고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가진 중부지방 출신이면서 가족에서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보다 딸을 더 좋아하고 특히 시집에서 아들을 무조건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 성선호에 대하여 여성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 남성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메콩델타에 살고 있는 20 대 후반 기혼 남성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요즘 아이를 낳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서 아이만 있다면 좋은 일이고 딸이나 아들을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아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아들이든, 딸이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남성, 20 대, 아들 1 명, 메콩델타)

이처럼 자녀에 대한 특정한 성선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1 장에서 연령별 남아선호에 대한 조사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연령층에서 자녀에 대한 성선호가 다른 것인가?

> 개인적으로 아들을 더 선호한다. 우리 첫째는 아들이고 나도 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자녀를 한 명만 가질 수 있다면 여전히 아들만 낳고 싶다. 이유는 가계 계승을 위해서... 우리 친

> 어머니도 재산 상속과 제사 지내는 데에 남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내 노후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의존할 의향이 없다. (남, 40대, 3자녀: 아들-딸-아들, 호치민)

이 경우에 면접 대상자가 본인의 강한 남아선호 태도를 보여주었다.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계계승으로 전통적인 가족가치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자녀의 부모 봉양 의무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다. 바로 호치민에 살고 있는 딸 3 명을 가진 부부의 경우였다. 남편의 경우 본인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적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편으로 된 아들"을 원한다고 밝혔다.

> 애들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지 않다. 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하지도 않고... 옛날과 같지 않지... 조상 숭배나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가계 계승도 없지... 우리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나는 조금 달리 셋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나를 닮은 (내 편으로 된) 자녀를 한 명이라도 가지고 싶을뿐이다. (남, 50 대, 딸 3 명, 호치민)

그러나 딸만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딸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처음에도 무언가 좀 허전하고 서운했는데 점점 괜찮아졌다. 딸도 내 뜻대로 교육시킬 수 있어서... 원래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서 나를 대신에 그 꿈을 이룰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딸도 내가 꿨던 꿈을 이룰 수 있다. 예전에 아들만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남, 50대, 딸 3명, 호치민)

부인의 입장은 남편과 달리 아들이나 딸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성균형을 선호한 것이다. 자녀 하나만 낳을 수 있다면 딸을 낳고 싶다고 밝혔지만 딸이나 아들만 가지는 것보다 아들과 딸이 동시에 가지는 것이 더 좋다고 알려주었다. 이는 베트남에서 이상적인 완벽한 가족 구성으로 볼 수 있다.

>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아들과 딸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아들이 있으면 나중에 결혼시키고 며느리 한 명을 가지고 나를 할머니로 부를 손자가 생길 것이고 (딸의 자식의 경우) 나를 외할머니로 부를 외손자가 생길 것이다. 딸과 아들을 둘 다 가지는 것은 딸이나 아들만 가지는 것보다 물론 낫지. 내

입장으로도 딸과 아들을 둘 다 가지고 싶다. 그런데 자녀를 한 명만 가질 수 있다면 아들이 아니라 딸을 가지고 싶다.(여, 50대, 딸 3명)

이상으로 현지인과 심층면접을 통해 남부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부 베트남에서 유교 문화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가부장적 가족가치는 사람들의 가족 생활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성선호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남아선호가 그나마 강한 편이다.

3. 소결

이 장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가치를 비교하고 남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현지인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강한 가부장적 가치와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양 국가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권위, 남성우위, 아들의 필수, 그리고 장자의 역할 등 가족가치의 4가지 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베트남에 비해 약간강하지만 그 차이는크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진 3가지의 변수에서 베트남은 더 강하고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불공평 또는 부계 거주 형태 등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 베트남은 베트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형성되며 주변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거주형태나 친족구조(kinship structure)가 북족에 비해 약간의 차이점이 생겨 가족가치도 달라졌다. 연구의 결과는 예상과 달리 남부 베트남에서도 남아선호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성선호는 남부 베트남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은 연구 참여자들이 본인의 노후 생활을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녀들과 동거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가치에 벗어나 남부 베트남만에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해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부 베트남에서 자녀 성선호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아들을 좋아하는 남아선호가 있는가 하면 딸을 더 좋아하는 여아선호나 아들과 딸을 다 좋아하는 자녀 성균형 선호도 있다. 합계 출산율이 감소되고 가족 규모가 축소되는 현대 사회에서 딸과 아들인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이상적이고 완벽한 가족 구성의 이미지로 여겨진다.

제 4 장 결론

이 논문은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가치의 영향을 통하여 한국과 베트남 사회의 남아선호를 비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 특히 남아선호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모두 남아선호가 강한 사회이다. 그러나 같은 남아선호 사회라고 해도 다 비슷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양 사회에서의 남아선호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변수를 통하여 살펴보고 각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남아선호의 근원은 유교문화와 가부장적 가치이다. 한국은 도시화.산업화 과정을 거쳐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강했던 남아선호가 점점 약화되고 여아선호사회로 변하였다. 베트남에서도 도시화.산업화 과정을 거쳤지만 한국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남아선호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다. 따라서 현대 양 국가의 현대 사회에서 남아선호의 근원인 가부장적 가족가치는 어떤지 살펴보았다.

셋째, 남부 베트남에서의 남아선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남부 베트남은 북부에 비해 남아선호가 강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였는데 남부 베트남에 대해 자세하게 연구한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남부 베트남의 지역적 특징과 이 지역에서 자녀 성선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기도 한다. 우선 남아선호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의 감소와 가족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자녀의 수 내에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과학 기술의 힘을 빌려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 성감별을 하고 여태아를 낙태함으로써 출생 성비의 차가 많이 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양 국가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남아선호를 성별,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에 따라 남아선호의 양상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이 3가지의 변수로 자녀 성선호를 검토해도 충분할 수 있으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베트남 인구는 주류 민족인 낑(Kinh)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외에 수많은 소수 민족도 있으며 각 민족의 가족제도가 다르고 모계나 양계 가족제도를 가지는

민족에서 남아선호가 약하다. 또한 지역상으로 북부와 남부의 자녀 성선호가 서로 다르고 남아선호가 북부에서 강하지만 남부에서 약하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변수 뿐만 아니라 민족구성과 지역도 남아선호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베트남의 가족가치를 비교한 결과 한국에 비하여 베트남에서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가치가 존재하고 있어, 남아선도호 더 강한 것이다. 양 국가에서 권위적.위계서열적인 가족가치와 남성 중심적 가족가치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며 남아선호가 가장 강한 베트남은 문론이고 여아선호가 강한 한국에서도 '가계를 계승하기 위해 적어도 아들 한 명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모든 연령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경우이다. 한국은 조사 시점에서 1990년대에 비해 출생 성비도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남아선호도 점점 약화되었지만 '아버지의 권위'와 '남성우위' 변수에서 그나마 높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셋째,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에 대해 북부가 남부보다 더 강한 것은 남부 지방의 지역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남부 지방은 뒤늦게 형성되어 주변 국가로부터 전승한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가지기

때문에 가계 계승 풍습이나 거주 형태가 북부에 비해 차이점이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또한 유교문화의 영향은 베트남에서 특히 대부분 빈민으로 구성된 남부 지방에서 그나마 크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남부 베트남에서 북부에 비해 더 개방적이다. 그러나 현지인과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예상과 달리 아들에 대한 선호가 강한 편이다. 면접 대상자 대부분 딸보다 아들이 더 좋아한다는 대답으로 2010년 베트남 가족조사 결과와 일관성있게 보인다. 남부 베트남의 또 다른 특징은 자녀 성선호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아들을 선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딸을 선호하거나 딸과 아들을 동시에 가지고 싶은 자녀 성균형을 선호하는 자도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2006년 동아시아 가족조사와 2010년 베트남 가족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를 비교하였다. 2 종료의 자료가 4년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통계자료가 많이 부족함으로 양 국가의 자녀 성선호에 대해 더 자세하게 비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의 또 다른 하나의 한계는 심층면접법으로 남부 베트남에서 알아보는 것이다. 남부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심층면접법으로 연구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면접 대상이 제한 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여 연구 결과를 내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심층적인 취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자녀 성선호 특히 남부 베트남에서의 자녀 성선호에 대해 포괄적인 시야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A. 국어 자료

주갑순, 최상순, 박순영, 1983. “남아선호사상을 가진 임부의 사회성 및 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공세권, 1986. “남아선호사상 얼마나 달라졌나?” 새가정사, 105-109.

진교훈, 1997. “한국의 남아선호사상” 한국의료법학회

마르티나 도이힐러, 2003.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이훈상 옮김. 아카넷.

이성용, 2004. “성선호 원인에 대한 한국과 자메이카의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8(3), 109-141.

은기수, 2013. “동아시아 사회의 자녀 성선호” 가족과 문화 제 25 짐 4 호.

유정균, 2014. “혼인이주여성의 아들선호가 추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7(3), 79-105

애방림, 2016.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녀 성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석사위논문.

B. 영문 자료

Lee Heung Tak, 1982. “Cause of son preference in Korea. A socio-demographic analysis” A research report to WHO.

Wha-Oak Bae, 1991. “Sex ratio at birth in Korea” Research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vol. 11(2).

James Allman, Vu Qui Nhan, Nguyen Minh Thang, Pham Bich San and Vu Duy Man, 1991. “Report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Vietnam”, Studies in Family Planning, 22, 5: 308-317.

Chai Bin Park, Nam-Hoon Cho, 1994. “Gender preference and sex imbalance in the population and their implication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17(1), 87-114.

Jonathan Haughton and Dominique Haughton, 1995. “Son Preference in Vietnam”,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26, No. 6, 325-337.

Mary L. Shanley, 1995. “Unwed Fathers' Rights, Adoption, and Sex Equality: Gender-Neutrality and the Perpetuation of Patriarchy” Columbia Law Review , Vol. 95, No. 1: 60-103.

Sidney B. Westley, 1995. “Evidence Mounts for Sex-selective Abortion in Asia”, Easr-West Center, Program on Population, No. 34.

Hollander, 1996. “Son Preference Remains Strong Among Vietnamese Women, but Has Only a Modest Effect on Fertility”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22, No. 2, 84-85

Tai-Hun Kim, 1997. "The Effects of Sex-Selective Abortion on Fertility Level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Vol. 26, No. 1.

Annika Johansson, Nguyen The Lap, Hoang Thi Hoa, Vinod K. Diwan and Bo Eriksson, 1998. "Population Policy, Son Preference and the Use of IUDs in North Vietnam" Reproductive Health Matters, Vol. 6, No. 11. 66-76.

Ulla Larsen, Woojin Chung and Monica Das Gupta, 1998. "Fertility and son preference in Korea" Population studies, vol. 52, No. 3, 317-325

Jongwoo Han, L. H. M. Ling; 1998. "Authoritarianism in the Hypermasculinized State: Hybridity, Patriarchy, and Capitalism in Korea" *International Studies* ; 42 (1): 53-78.

Robin Burgess, Juzhong Zhuang, 2000. "Modernisation and Son Preference" Development Economics discussion paper, London School of Economics.

Danièle Bélanger, 2002. "Son Preference in a Rural Village in North Vietnam",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ume 33, Issue 4, 321-334.

Dudley L. Poston, Julie Juan Wu, Kim Han Gon, 2003. "Patterns and Variation in the Sex Ratio at Birth in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Volume 32 Number 1, 47-60.

Monica Das Gupta, Jiang Zhenghua, Li Bohua, Xie Zhenming, Woojin Chung & Bae Hwa-Ok, 2003. “Why is Son preference so persistent in East and South Asia? A cross-country study of China,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Journal od Development Studies, 40:2, 153-187.

Monica Das Gupta, 2005. “Explaining Asia’s “Missing women”” A new look at the dat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1(3): 529-535.

Kelly H. Chong, 2006. “Negotiating Patriarchy: South Korean Evangelical Women and the Politics of Gender” Gender and Society, vol. 20(6): 697-724.

Ndia Y. Kim, 2006. “"Patriarchy is So Third World": Korean Immigrant Women and "Migrating" White Western Masculinity” Social Problems , Vol. 53, No. 4: 519-536.

Phillip Longman, 2006. “The Return of Patriarchy” Foreign Policy , No. 153: 56-60, 62-65.

Rosina Nasir and A.K. Kalla, 2006. “Kinship system, Fertility and Son preference among the Muslims : A review”, Anthropologist, 8(4): 275-281.

Shin, Ki-Young, 2006. “The Politics of the Family Law Reform Movement in Contemporary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11(1), 93-128.

Woojin Chung and Monica Das Gupta, 2007. "The decline of son preferencein South Korea: The role of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4), 757-783.

Eunkang Koh, 2008. "Gender Issues and Confucian Scriptures: Is Confucianism Incompatible with Gender Equality in South Korea?"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vol. 71(2): 345-362.

Danièle Bélanger and Khuat Thi Hai Oanh, 2009. "Second-trimester abortions and sex-selection of children in Hanoi, Vietnam" Population Studies, vol 63(2), 163-171.

Christophe Z. Guilmoto, Xuyen Hoang, Toan Ngo Van, 2009. "Recent Increase in Sex Ratio at Birth in Viet Nam", PloS One 4(2)

UNPFA, 2011. "Son preference in Viet Nam: Ancient desires, advancing technologies"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in Viet Nam's publication.

UNPFA, 2011. "Sex ratio at birth in Viet Nam: new evidence on patterns, trends and differentials"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in Viet Nam's publication.

Bang Nguyen Pham, Wayne Hall, Peter Stewart Hill, 2011. "Indirect Evidence of The Contribution of Prenatal Sex Selection Practices

to the High Sex Ratio at Birth in Vietnam", J Pop Research, 28: 293-299.

Christophe Z. Guilmoto, 2012. "Sex selection, son preference, and kinship structure in Viet Nam", Centre Population and Development.

Tien Manh Vu, 2012. "The lexicographic preference for a son: evidence from hosehold data in Vietnam" Osaka School of International Public Policy, Osaka Univeristy.

Sung, Woong-Kyu, 2012. "Abortion in South Korea: The Law and the Real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26(3), 278-305.

Valentine Becquet, 2013. "From gender inequality to Prenatal sex selection: comparative analysis of son preference in Hai Duong and Ninh Thuan province, Vietnam." Journal of Sciences.

Valentine Becquet and Chistophe Z. Guilmoto, 2013. "Sex selection and family patterns across Vietnam" News from Asia

Tien Manh Vu, 2013. "One mal offspring preference: evidence from Vietnam using a split-population model"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vol. 12, 689-715.

UNFPA, 2014. "The Imbalanced Sex Ratio at Birth in Viet Nam: Connecting Research and Policy for Chang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in Viet Nam's publication.

Valentine Becquet, 2015. “Modelling Gender Preference: Regional Perspectives on Sex Ratio at Birth in Vietnam” Presented at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Meeting, SanDiego, CA.

Eleanor Jawon Choi and Jisoo Hwang, 2015. “Child Gender and Parental Inputs: No More Son Preference in Korea?”,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105(5), 638-643

Danièle Bélanger, 2015. “Son preference, science and modernity” Asian Population Studies 11(3): 211-213.

Monica Das Gupta, 2016. “Is Banning Sex-Selection the best approach for reducing prenatal discrimination?”, presented at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Meeting, Washington DC.

Andrea den Boer and Valerie Hudson, 2017. “Patrilineality, son preference and sex selection in South Korea and Vietnam”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3(1): 119-147.

C. 베트남어 자료

Do Thai Dong, 1990. “Gia đình truyền thống và những biến thái ở Nam bộ Việt Nam”(Modifications of the Traditional Family in the South of Vietnam), tạp chí Xã hội học.

Võ Thị Cẩm Vân, 2015. “Sự du nhập và ảnh hưởng của Nho giáo đến giá trị truyền thống văn hóa Việt Nam”, Văn hóa Nghệ An.

Abstract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in Korea and Vietnam: Influence of Confucianism Culture and Patriarchal Values

Vietnam and Korea have long been known as son-preference-countries in East Asia. The son preference has led to some serious social issues related to gender selection before birth such as sex determination as well as sex-selective abortion. As a result, gender ratio at birth of the two countries has currently increased to a considerable imbalance number (over 105~107 boys per 100 girls). In Korea,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have been the major causes to many societal changes including the weakened patrialchal values in a family and the son-preference tendency within Korean society. In Vietnam, son-preference is still a noticeable social problem while the recent increase in sex-ratio at birth biased to male has contributed to the greater concerns of sociologists.

Regarding to this concern,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the gender preference between Vietnam and Korea, focus on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patriarchal values and figure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variables of sex, age and educational level. The research also compares about the family values between Vietnam and Korea to find out a justified explanation for the son-preference in Vietnam. In particular, son preference in the South of Vietnam is studied by interviewing people living and working in Southern provinces. In addition, differences in son pre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of Vietnam are also taken into account.

Gender Preferfence for Children in Korea and Vietnam : Influence of Confucianism Culture and Patriarchal Values

Key Words: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son preference, daughter preference, family values, patriarchal values

Student number: 2014-24255